



이은주 서울 상왕심리 삼거리커피숍 주인

“사람의 웃음이
가장 예쁜 꽃이죠”

상왕심리에 위치한 삼거리커피숍은 이은주씨가 자비와 자선을 베푸는 공간이다. 삼거리커피숍에 들어서면 한쪽엔 쌀 포대와 부식들이 놓여있고, 한쪽엔 가난한 나라로 보낼 옷가지들이 쌓여있는가 하면 주방은 대형 냉장고와 2대나 있어 식당을 방불케 한다. 분위기가 여느 커피숍과는 다르다 보니 처음 오는 손님들은 “어 무슨 커피숍이 이래?”하고 조금은 의아해 한다.

남편과 다섯 남매를 둔 아내이자 엄마인 이은주씨는 커피숍 일만 해도 벅찰 텐데, 그가 지금까지 돌봐 온 어르신은 17명, 아이들은 19명이다. 지금도 어르신 아홉 분과 유치원생을 비롯하여 초·중·고교를 다니는 아이들 열한 명을 돌보고 있다. 이 많은 대식구를 밥해 먹이라, 빨래하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돌보라 할 사람이 함께 해도 부족할 터인데 이은주씨 혼자서 다 해 내는 것이다. 보조금 한 푼 받지 않고 순전히 자신이 번 돈으로만 지탱해나가고 있다.

게다가 이웃의 움직임 수 없는 독거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날마다 도시락 열개를 준비하여 집집마다 배달한다. 하루에 오십인분의 밥을 해낸다고 한다. 카운터에는 연두색 돼지저금통이 12개가 있다. 한 테이블에서 나오는 찻값 중 천원은 어김없이 돼지저금통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일 년 동안 모은 돈으로 쌀 수십 포대와 여러 가지 물품을 준비해서 양로원과 고아원을 방문한다.

“내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한 사람의 생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

었습니다.”

내가 배불리 먹고 나머지를 주는 것, 내가 다 쓰고 남은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내 먹을 것을 먹지 않고 내가 누릴 것을 누리지 않고 남에게 주는 것은 정말 귀하고 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주변으로 눈을 돌리면 온통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뿐입니다. 가진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가진 것 때문에 불편하다면 그것은 불행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어르신들 중에는 자식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도 있었으며, 연고도 없는 다섯 분의 어르신은 직접 장례식까지 치러드렸다. 이은주씨가 직접 장례식을 치러드린 분은 삼년동안 제사를 지내준다.

이은주씨의 자선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이은주씨는 신부전증으로 시한부 삶을 살고 있었다. 어디든 매달리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절에 다녔다. 절에서 홀로 사는 할머니를 만났는데, 할머니의 아들은 교도소에 있었다. 이은주씨는 아들 면회를 갈 때면 길을 잘 몰라 힘들어하는 할머니를 모시고 함께 갔다. 이리다 정이 들어 할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았다. 이



이은주씨의 오남매는 모두 출가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엄마의 자선을 이해하지 못했고 불만도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엄마를 이해하고 도와주고 있다. 알 수 없는 인연으로 자기와 맺어진 아이들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시켰듯이, 이은주씨의 5남매도 고등학교만 졸업시켰다. 데려온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은주씨가 키워 낸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사회에서 당당히 자기 몫을 해내고 있다. 아이들이 행여나 술, 담배를 배울까봐 커피숍에서 술은 일체 팔지 않는다. 교복은 항상 깨끗이 빨고 다려서 입혔다.

“전 데려온 아이들에게도 엄하게 해요. 이들이 어디 가서 ‘부모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잘못했을 때는 혹독하게 꾸짖어요. 나무가 삐뚤어져 있으면 참으로 윤치가 있지만, 사람이 비뚤어지면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이은주씨는 결혼을 앞둔 8명의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데려온 날부터 매달 부어온 적금과 결혼할 때 건네 줄 금팔찌와 반지 등의 패물이다. 그리고 자신의 성장사가 고스란히 담긴 앨범이다. 아이들의 운동회, 입학식, 졸업식마다 따라 다니느라고 힘들었다고 한다.

이은주씨의 손을 보면 거칠고 손가락이 비뚤어져 있다. 그 많은 식구들의 먹거리를 준비하랴, 세탁기도 없이 손으로 세탁해서 입고 있으니 손에 물마름 날이 없다. 왜 그 흔한 세탁기도 없느냐고 물었더니 ‘전기세 나가는 것이 아까워서 쓸 수 없다’고 한다.

“어려운 이웃이나 어르신들을 보면 내 몸이 아픈 것처럼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을 아끼처럼 사랑해주고 인아취야 마음이 편해요. 우리 이 몸은 죽으면 흩어질 텐데 아껴도 아무 소용없어요. 저는 그저 착하게 사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라 생각해요.”

이은주씨는 그 흔한 관광여행 한 번 가보지 못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큰 도움 없이 혼자서 봉사와 자선을 해왔지만 지금은 몸도 아프고 하니 힘에 부친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면 자신이 할 일이 많지만 하단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나눔을 도우면서 살겠다는 것이 이은주씨의 서원이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커피숍 운영하며 이웃 돌보기 30년 무의탁 노인·어린이 20명과 동고동락

어 놓을 때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 주저앉아 남 몰래 울 때도 많

일을 계기로 이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불쌍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자식으로부터 버림받고 밥을 비는 어르신들, 버림받은 아이들, 알코올중독자 등등해서 가슴 아픈 사연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때부터 자신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신의 능력껏 도우기 시작했다. 이들을 돌는데 정신과 시간을 쏟다보니 이은주씨의 신부전증도 거짓말처럼 나아버렸다. 이은주씨는 “지금의 내 삶은 텅으로 사는 것”이라 했다.

“세상의 꽃은 뭐니 뭐니 해도 사람들의 웃음과 미소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향기는 곧바로 너그러움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해있어도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세상의 이해관계에 끌려 다니지 않는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인지 이은주씨의 얼굴에서는 미소와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을 참으로 많이 쓴다.

SHC 삼환종합양초

삼보귀의 하얏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 = 밀납양초, 약쑥향양초, 식물성 양초) 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무료전화 080-0766-88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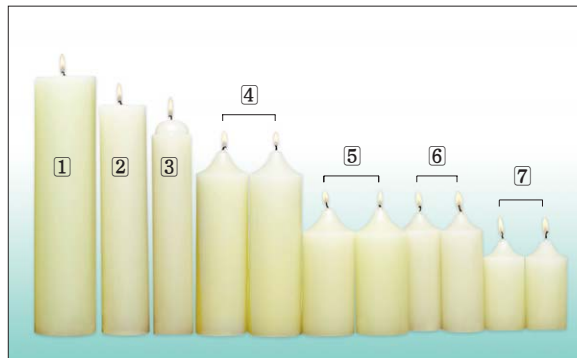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밀납양초(蜜蠟洋燭)

- 1 밀납초(1-4호까지 8개, 받침대 2개) 선물세트
- 2 밀납초금강경(7개) 선물세트
- 3 밀납초원기둥 7.4φ × 30Cm
- 4 밀납초돈타레 5.6φ × 27Cm
- 5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φ × 20Cm 연소시간 약 80시간 이상
- 6 밀납초 1호 금강경 5.9φ × 20Cm 연소시간 약 80시간 이상
- 7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φ × 14Cm 연소시간 약 30시간 이상
- 8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φ × 10Cm 연소시간 약 24시간 이상



■ 약쑥향 양초

- 1 원기둥 7.4φCm × 29Cm
- 2 돈타레 5.6φCm × 27Cm
- 3 밀 대 4.7φCm × 25Cm
- 4 1호 5.9φCm × 20Cm
- 5 2호 5.9φCm × 14Cm
- 6 3호 4.7φCm × 13Cm
- 7 4호 4.7φCm × 10Cm

장엄용 양초



■ 육각초 45cm

■ 야광 호랑이(산신) 70φ × 35cm



■ 야광 양초 70φ × 35cm

■ 원기둥 마패 7.4φ × 30cm

■ 등신불 마패 4.7φ × 19.5cm

주소창에 “양초.net” 라고 치세요 ~

주소창 양초.net